

아름다운 책, 따뜻한 책,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
길벗어린이가 만들어 갑니다.

길벗어린이

www.gilbutkid

오리와 오노

마오족의 문화 이야기
이영진 글 · 그림

길벗어린이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우리와 온도
마도록의 꿈과 판권 이야기

내 밤 속 달님이 된 을 압니와 지구상 모든 어머니 마음을 기리며.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오리와 오도

마오족의 문화관취 이야기

이영민 글 · 그림



길벗어린이



산 높고 물 맑은 어느 마을에 오러라는 착한 아가씨가 있었답니다.
오러는 맘씨 고약한 새엄마와 게으르고 심술궂은 동생 오도와 살았어요.
“얘, 오러야, 어째 그리 꾸물대는 게야! 빨래는 언제 하려고!”
새엄마는 오러에 비만 온종일 집안일을 시켰어요.

www.gilbutkid.co.kr



어느 해 꽃충놀이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총각들과 아가씨들은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려고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엄마는 오도를 꾸며 주느라 부산을 떨었어요.
“애, 오러야. 네 옷을 오도에게 입혀야겠구나. 어서 가져오너라.”
아가씨들은 제 손으로 수놓은 치마저고리를 입고 꽃충놀이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오도가 수놓은 건 예쁘지 않았기 때문에, 오러의 치마저고리를
오도에게 입혔어요. “어머니, 저도 꽃충놀이에 가게 해 주세요.”
오러가 이렇게 말했지만 엄마는 못 들은 척했어요.

길벗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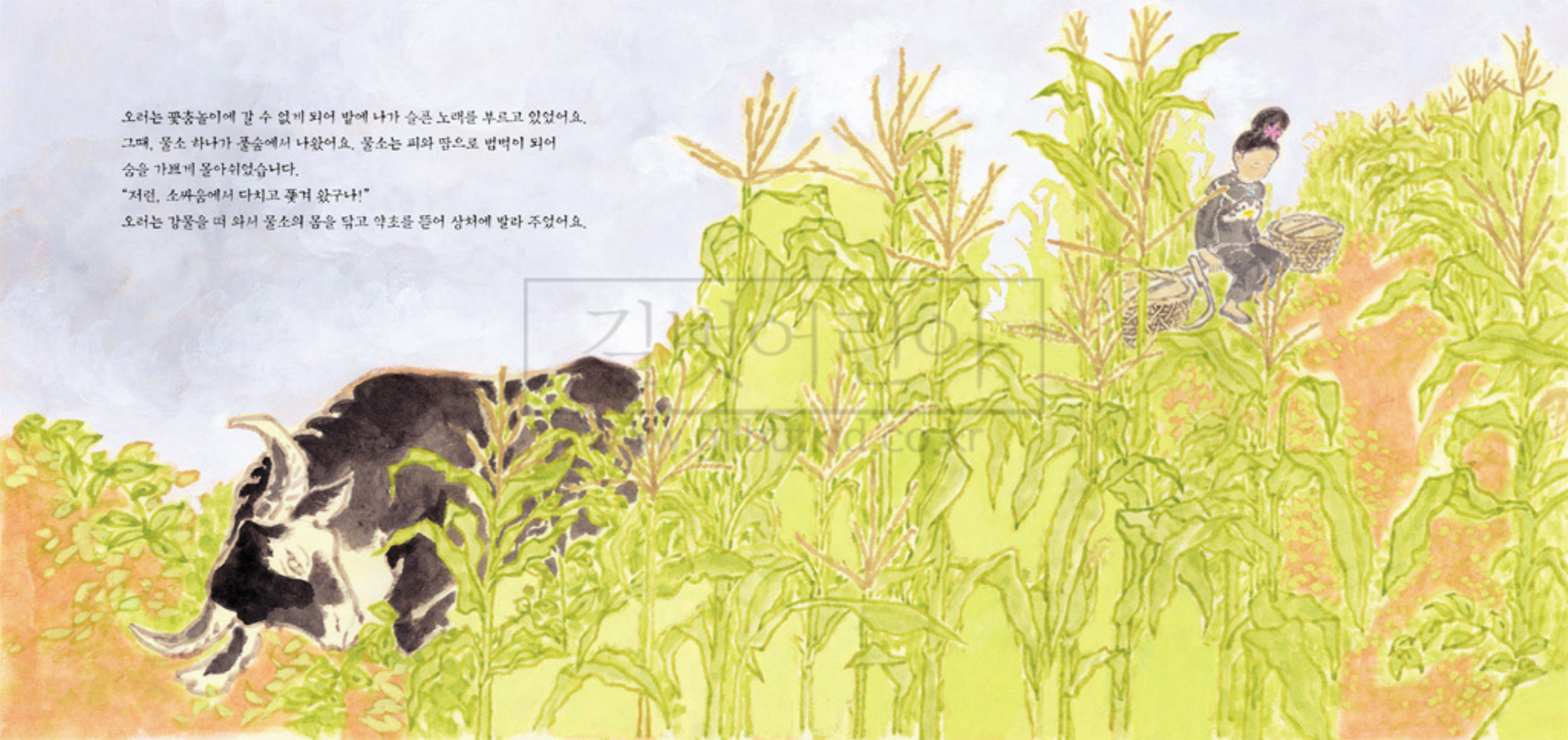
www.gilbutkid.co.kr



오러는 꽃창졸이에 갈 수 없게 되어 밭에 나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물소 하나가 풀숲에서 나왔어요. 물소는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저런, 소싸움에서 다치고 쫓겨 왔구나!”

오러는 감물을 떠 와서 물소의 몸을 닦고 약초를 뜯어 상처에 발라 주었어요.





물소가 겨우 기운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넌 왜 슬퍼하고 있었지?”

오려는 꽃춤놀이에 못 가게 된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런 일이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물소가 낮은 노래를 송얼거리자 하늘과 땅과 물속 짐승이 모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오려는 물과 꽃을 떨어 왔어요. 못 짐승과 물과 꽃이 서로 어우러져

오리를 아름답게 꾸며 주었지요. 물소는 꿈으로 멋진 뿔을 빌려 주었어요.

“정말 고마워. 잊지 않고 돌려줄게!”



오려는 마음이 부풀어 꽃춤놀이 마당으로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모두 넋을 잃고 아름다운 오려를 바라보았어요.
오려는 복숭아 같은 두 볼을 하고, 한참 생황을 불고 있는
샤오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일등 생황수 샤오나는 함께 춤출 아가비를
찾고 있었지요. 오려를 보고 곧 춤을 청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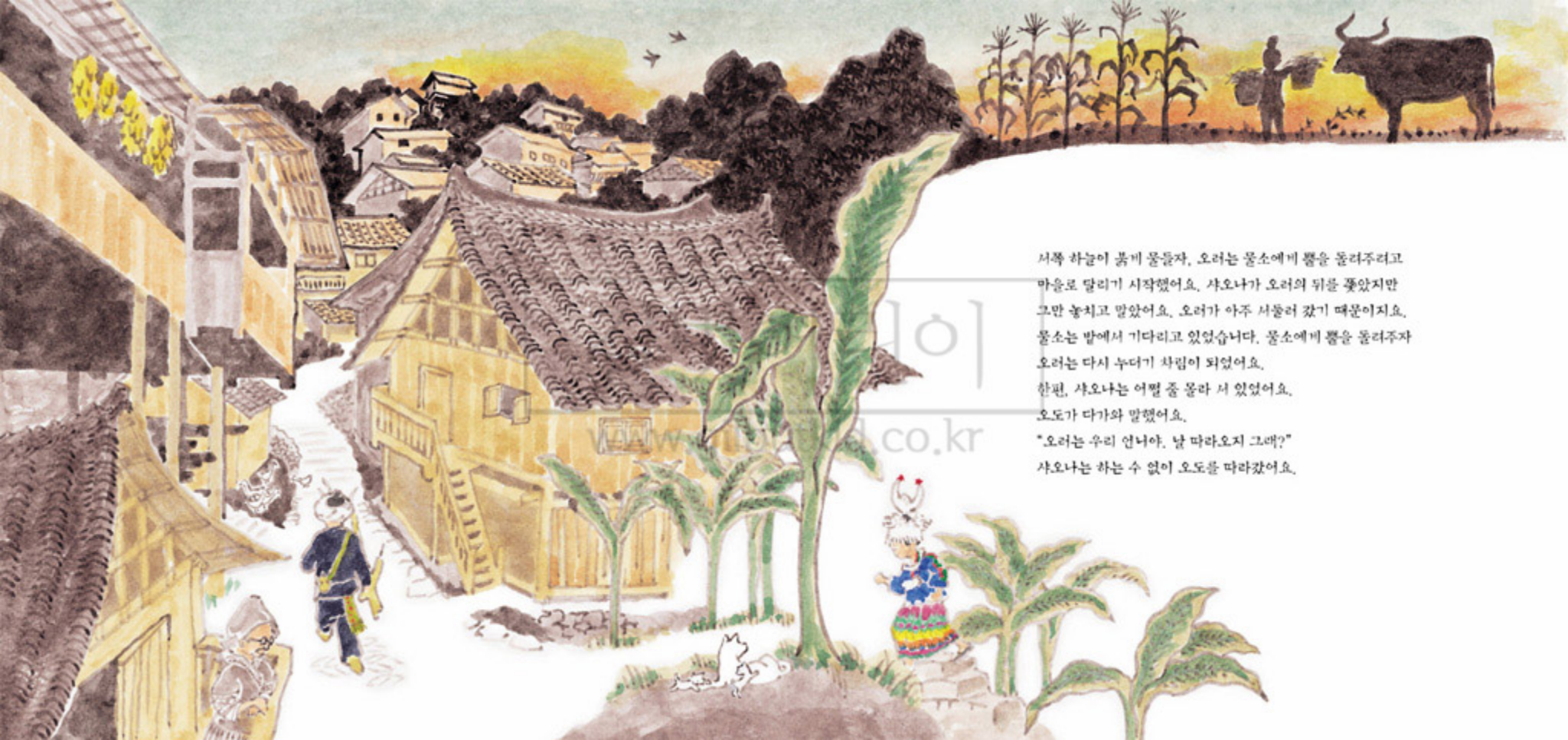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샤오나가 신나게 생활을 볼자
오러는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며
즐겁게 춤을 추었어요. 청년들과 아가씨들이
흥겹게 발을 구르는 소리에 땅이 들썩였습니다.

딱 한 사람, 오도만은 혼자 도라져 있었어요. 멧쟁이 샤오나가
오러와 짝이 되다니, 못마땅해 죽을 지경이었지요.
오도는 둘 사이를 해방 놓고 싶어서 춤을 출 수가 없었어요.
오, 딱한 오도!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자, 오려는 물소에게 뿔을 돌려주려고
마을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샤오나가 오려의 뿔을 쫓았지만
그만 놓치고 말았어요. 오려가 아주 서둘러 갔기 때문이지요.
물소는 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시다. 물소에게 뿔을 돌려주자
오려는 다시 누더기 차림이 되었어요.
한편, 샤오나는 어쩔 줄 몰라 서 있었어요.
오도가 다가와 말했어요.
“오려는 우리 언니야. 날 따라오지 그래?”
샤오나는 하는 수 없이 오도를 따라갔어요.



집 앞에 이르자 오도는 문을 툇툇 두드리며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 때 오도가 슬쩍 샤오나의 팔뚝을 끼었어요.
 엄마가 보니 웬 멋진 청년이 오도와 다정하게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는 하늘로 솟을 듯 신이 났습니다.
 “어서 오게. 호호호, 내 말하고 썩 잘 어울리는걸!”
 샤오나는 잠자코 오터를 기다렸어요.





이윽고 오려가 땀감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비으른 것아! 온종일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게야!

손님 오셨는데 땀글 아궁이에 불 지피지 못하겠네!"

엄마는 한바탕 잔소리를 한 다음, 오도를 데리고 오리를 잡으러 나갔어요.

샤오나는 말없이 생황을 불기 시작했고 오려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따뜻한 연기와 불꽃이 오려의 마음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엄마는 오리 고기를 꼭 삼았습니다.

오도와 샤오나에게는 살코기를 수북이 담아 주고

오리의 그릇에는 뼈다귀만 수북이 놓았어요.

"나는 위층에서 바쁜 일이 있으니 많이 먹게."

샤오나가 집짓 실눈을 뜨고 말했어요.

"불빛이 조금만 있어도 저는 눈이 부셔서 고기를 못 먹는답니다."

엄마는 얼큰 등불을 치웠어요. 사방이 캄캄해지자

샤오나는 오리와 오도의 그릇을 슬쩍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리의 손을 끌어다 살코기 그릇에 얹어 주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샤오나가 말하자 세 사람은 먹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오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나한테 뭘 준 거야! 이빨 다 부러지겠어!”

엄마는 일을 하다 말고 등불을 들고 우당탕 내려왔습니다.

이때 샤오나가 오러와 오도의 그릇을 얼른 되돌려 놓았어요.

“이 웅충한 고기를 놓고서 무슨 소리니, 오도?”

엄마가 다시 위층으로 사라지자 샤오나는 오러와

오도의 그릇을 또 슬쩍 바꾸어 놓았어요.

세 사람은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야!”

엄마는 또 우당탕 내려왔어요.

샤오나는 재빨리 오러와 오도의 그릇을 되돌려 놓았어요.

“이 멀쩡한 고기를 두고 왜 투정인 개야!”

다시 엄마가 올라가고 어둠 속에서 오도가 또 엄마를 불렀어요.

“못된 것아, 나도 이제 지쳤으니 먹든 말든 네 맘대로 해!”

엄마가 위층에서 소리를 꺾 지르자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뽕뽕, 뽕뽕’은 샤오나와 오도가 맛나게 먹는 소리였고요.

‘빠각, 빠각’은 오도가 뼈다귀와 씹는 소리였지요.

“오도, 고기반찬에 술 한잔 빠질 수 없지, 안 그래요?”

오도는 샤오나가 주는 대로 꿀꺽꿀꺽 마셔댔어요.

그래야 배가 조금 불러 왔지요.

위층에서는 엄마가 오도와 샤오나를 위해 비단 이불을 펴고

두 사람의 첫날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오도를 시집보낼 생각에 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는 세 사람이 실컷 먹고 마신 뒤였어요.

“샤오나, 오늘 밤 잘 쉬고 내일 아침 해 뜨는 대로 내 딸과 떠나비.

부디 오도와 행복하게나. 오러, 넌 아궁이 불이나 지켜.”

엄마는 이렇게 말하고 자러 가 버렸어요.

오러는 아궁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 꽃잎에 수를 놓았어요.

샤오나는 그 앞에 앉아 불을 띄는 척했지요.

술에 취한 오도는 잠이 쏟아졌어요. 침다 못해, 오도가

한쪽 눈을 감고 샤오나에게 말했어요.

“이제 올라가자.”

“아직 일러. 밤이 깊지 않았으니.”

한밤중이 되어 오도가 두 눈을 감고 말했어요.

“이제 올라가자.”

“아직 일러. 새벽달이 뜨지 않았으니.”

새벽달이 뜨고 오도가 드러누워 말했어요.

“이제 올라가자.”

“아직 일러. 첫닭이 울지 않았으니.”



꼬미오,

첫눈이 올었을 때 오도는 드르렁드르렁 코를 꿈며 잠을 자고 있었어요.

샤오나가 오더에게 말했어요.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이런 고생은 오늘로 끝이요.”

오더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잠든 오도에게 속삭였어요.

“미안하지만 이제 내 옷을 돌려주겠나?”

오더는 오도가 입을 치마저고리로 바꾸어 입고 누더기는 오도에게

살짝 덮어 주었어요. 그리고 정성 들여 수놓은 꽃신을 신고

샤오나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아침이 되어 엄마는 딸의 침실로 후닥닥 뛰어가 보았어요.
 이불이 말끔히 정돈되어 있고 오도와 샤오나는 보이지 않았지요.
 엄마는 낱아갈 것같이 기쁜 마음으로 계단을 내려왔어요.
 아궁이 옆에 널브러져 있는 누더기 소녀를 힐끗 흘겨보고는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배를 짰어요.
 해가 하늘 높이 떠오르고 나서야 오도는 궁적이기 시작했어요.
 "잘했군, 잘했어. 내 딸 오도는 시집을 갔다네."
 오도가 듣자니 엄마가 엉뚱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엄마, 풀어서 나 몰래 가 버렸어."
 엄마는 입을 한 번 삐죽이고는 목소리를 한층 높였어요.
 "옴지, 옴지, 당연해~ 풀어서 후딱 가게 돼 있는 거야."
 "엄마, 나 안 갔어."
 "옴지, 옴지, 당연해~ 너는 거기가 어울려, 어서 풀어나 길으러 가거라~."
 "엄마, 난 언제 시집가!"
 오도는 배를 부르며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길벗어

www.gilbut



엄마도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아니, 오러 저것이 이 좋은 날에 웬 악다구니인 비야!

어디 혼 좀 나 봐라.”

엄마는 밀랍 한 통이를 드뚝이 녹여서는 누더기 소녀 위로
넙다 부어 버렸어요. 오도의 몸뚱이는 온통 밀랍 범벅이 되었어요.

눈도 입도 코도 다 막혀서, 바닥에 큰대 자로 뺄어 버렸답니다.

엄마는 마음이 고약했지만 자기가 혼자 남는 건 무서웠어요.

부라부라 얼굴에 굳어 있는 밀랍을 걸어 내 주었지요.

그런데 눈물 콧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건

말소사, 오러가 아니라 오도였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오도는 이듬해 꽃송이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오러가 없으니 재 손으로 치마저고리를 만들어야 했어요.

나는 우연히 오도의 집을 지나가게 되었지요,
오도는 꽃신에 수를 놓고 있었는데 실이 엉킨다고
언신 루덜대고 있더군요,
쫓쫓쫓, 다음 기회에는 좀 잘해 봐요, 오도.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마오족 풍취팔위 이야기 <오리와 오도>에 대하여

《오리와 오도》는 《요족민간고사설》에 《오리와 사오나》(畝梨與召納)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 이야기를 다시 쓴 것입니다. 계모에게 구박당하는 여주인공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마을 잔치에 가게 되고, 거기서 사랑하는 짝을 만나 새 삶을 찾는 이야기이지요. 우리의 <풍취팔위>, 서양의 <신데렐라>와 같은 유형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같은 유형 이야기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의 <설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어요. 중국 대륙의 여러 민족이 저마다 특색 있는 이야기를 전승하고 있는데 《오리와 사오나》는 구이저우 성에서 전해오는 마오족 이야기입니다.

《설한》<풍취팔위>《신데렐라》이야기 하면 남녀의 운명적인 만남을 상징하는 신발이 먼저 떠오릅니다. 《설한》에는 물고기가, <풍취팔위>에는 소가, 독일의 신데렐라 이야기 <아센부텐>에는 새가 나와서 여주인공에게 신발과 잔치에 얹고 갈 옷을 줍니다. 아주 오랜 옛날 부족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특징한 동식물을 자기 부족의 조상이자 수호신으로 믿고 숭배했습니다. 그 동식물들이 옛날이야기에서 주인공을 돕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지요. 물고기, 소, 새는 여주인공이 죽은 친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리와 사오나》를 들려준 사람은 신발과 신비한 동물

을 등장시키지 않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풍취팔위>나 <아센부텐>과 다르게 사랑하는 감정을 실감 나게 그렸습니다.

옛날이야기에는 환상적인 인물이나 물건, 사건이 나와서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이야기가 있고, 그와 다른 갈래로 웃음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음을 주는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날 법한 사건들을 생활 감정을 담아서 더 친근하게 표현합니다. 신비로운 이야기와 웃음을 주는 이야기는 서로 섞이기도 하지요. 어떤 이야기꾼들은 인생의 중대한 진실을 담은 신비한 사건을 사실비적인 소동과 우스개로 둘러주기도 하였습니다. 《오리와 사오나》를 들려준 사람도 그랬습니다.

《오리와 사오나》에서는 계모와 계모의 친딸이 여주인공을 시샘하고 사랑을 가로채려는 모습이 무척 재미있게 그려집니다. 청춘 남녀의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에 모험한 분위기가 깔려있다고 할까요. 옛날이야기는 착한 인물과 악한 인물을 선명하게 대비시켜서 인간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선악의 양면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지요. 그런데 이 계모와 계모의 친딸은 그런 전형적인 악인은 아니고 이웃에 사는 삼보가 못된 사람 정도도 보입니다. 그래서 최똥을 바른 봉에 들어가거나 쫓겨막에 맞아 죽지는 않고, 장신을 차릴

만큼 땀을 뺀고 우리한테 웃음을 선사합니다.

분위기가 달라져도 이야기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아이가 여성으로 노는 이야기, 어머니의 율타리에서 벗어나 독립하는 이야기, 지금의 고단한 삶을 벗고 행복한 일날을 개척하는 이야기, 성인이 되는 관문인 결혼에 관한 이야기, 여러모로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린이들이 독립이나 결혼의 의미를 어른처럼 느끼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것은 어린이들이 겪는 중대사이고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황당하고 엉뚱하기 짝이 없는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때론 살짝 놀랄 만큼 정곡을 찌르는 발견을 하는 것이 어린이들입니다. 틀림없이 공통하게 궁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옛날이야기에서 그리는 모습들을 마음속 어딘가에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가 이영경은 이야기를 다시 쓰면서 《오리와 사오나》에 없는 물소를 등장시켰습니다. 마오족에게는 물소가 형님, 호랑이는 동생이라는 옛날이야기가 전합니다. 비룡사를 짓는 마오족은 예로부터 물소를 물도 없이 소중히 여겼고, 물소가 악을 물리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마오족이 다른 각민에서는 여주인공의 어머니가 소로 변하고 계모한테 죽임을 당한 뒤에도 계속 여주인공을 도와줍니다.

‘꽃춘놀이’는 마오족의 민속 명절인 도화절(桃花節), 또는 도화장(桃花場)을 옮긴 말입니다. 청춘 남녀가 흥겹게 춤과 노래를 즐기며 마음을 나누고 혼인 상대를 고르는 명절이지요. 놀이판을 이끄는 생활이란 악기는 길고 짧은 대나무 관을 여러 개 묶어서 만든 것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데, 원래 마오족 사람들이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구이저우 성의 마오족 마을 두 곳을 여행한 일이 계기가 되어 이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에 표현된 자연경관과 마을과 집, 잔치 풍경과 사람들의 옷차림은 작가가 보고 온 마오족 마을을 중심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참고문헌

《畝梨與召納》, 《畝梨民間故事選》, 中國民間文學研究會貴州分會編, 上海文藝出版社, 1981, 174—196쪽.

《畝梨和露德》, 《畝梨民間故事》, 四川民族出版社, 1987, 149—157쪽.

참고한 자료

자오단(趙丹), 〈한·중 '전통문화' 형 민담의 문화정책적 해석〉, 〈한·중 민담심화 비교연구〉, 보교사, 2006, 299—323쪽.



자기 땅에서 스스로 터득한 삶의 방식이 생명력 있게 계승되며 너와 나의 차이가
서로 존중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오죽 마을을 여행하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 책의 씨앗이 된 여행으로 이끌어 주신 박영제 선생님과 고된 여행길에서
가르치고 보살피 주신 북경중앙민족학원의 박춘자 교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영경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세상에 사는 가장 사랑받는 옛날이야기의 하나인 '공주판결'을 소개하고 유쾌한
마오족의 이야기로 만나 보세요. 멋진 여동생 오도는 오리의 잔치웃음
배앗아 입고 새엄마는 꽃도래를 뿌리며 오도의 첫날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사람이 뒤따라가 버렸지 뭐예요?
새엄마와 오도가 울고불고래 봐야 소용없어요. 오리와 사오나는 행복을 찾아
멀리멀리 떠났으니깐요. "오도, 다음에 진짜 네 차례가 오면 잘해 보렴!"

한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아름다운 책, 따뜻한 책,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
길벗어린이가 만들어 갑니다.